

16일 윤성빈, 17일 최민정·심석희, 18일 이상화 金 사냥

<스켈레톤>

<쇼트트랙 1500m>

<스피드스케이팅 500m>

설 연휴 '코리아 골든데이'

17일 남자 쇼트트랙 1000m

임효준·황대현 금빛 레이스

'태극 전사'들이 설날 연휴 금빛 레이스를 예고하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종합순위 4위를 목표로 하는 한국 선수단은 민족의 명절인 설에 금메달을 향한 분투를 펼치게 된다.

한국 선수단은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동안 스피드 싸움을 하며 금메달 수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스켈레톤의 간판 윤성빈(강원도청)의 경기를 비롯해 빙상에서 펼쳐지는 쇼트트랙 등이 관심 종목이다.

'스켈레톤 천재' 윤성빈은 설날인 16일에 한국 썰매 사상 첫 금메달 사냥에 도전한다. 금메달을 향한 윤성빈의 움직임은 좋다. 윤성빈은 13일 강원도 평창올림픽 슬라이딩센터에서 진행된 남자 스켈레톤 공식 연습 3차 주행에서 50초81을 기록, 전체 30명의 출전자 중 영국의 톱파스(50초78)에 이은 2위에 올랐다.

스타트 기록은 5.01초로 전체 20위에 그쳤지만, 최종 2위에 올랐다는 것은 그의 주행이 얼마나 매끄러웠는지를 잘 보여준다. 윤성빈은 앞서 12일 열린 1~2차 공식 연습도 불참하는 등 전력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여기에 '안방'이라는 전력도 윤성빈의 금메달에 무게를 실어준다. 윤성빈은 홈그라운드인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경기하는 만큼 기록 또한 월등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4일에 있을 5~6차 연습도 거를



윤성빈



이상화

것으로 보여, 올림픽 본 경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각오다.

17일에는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쇼트트랙의 '쌍두마차' 최민정과 심석희가 여자 1500m에 나란히 출전해 메달 다툼을 벌인다. 올 시즌 1500m 세계 랭킹 1, 2위에 랭크된 두 사람이다. 당일 컨디션에 따라 메달 색깔만 다르게 입상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날 남자 쇼트트랙 1000m에서도 임효준과 황대현, 서이리가 금빛 레이스에 나선다.

임효준은 특히 지난 10일 남자 1500m

에서 대한민국에 평창 첫 금메달을 안기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1500m 결승에서 넘어져 아쉽게 메달을 놓친 황대현도 다시 한번 금메달에 도전한다.

'빙속 여제' 이상화는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 나서 동계올림픽 3연패에 도전한다.

숙명의 라이벌인 고다이 나오(일본)와의 결전이 예고된 이 날 경기에서 이상화가 금메달을 목에 걸면 아시아 최초 빙속 3연패, 한국 동계올림픽 사상 첫 3연패의 대기록도 수립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 첫 금 임효준 평생 월 100만원 받는다

일시금 선택액 6720만원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4년간 흘린 땀과 눈물의 보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선수라는 영광과 명예를 얻는다. 아울러 각종 포상금으로 경제적 혜택도 받는다.

우리나라의 메달리스트에 대한 포상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급하는 '메달 포상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경기단체를 통한 종목별 포상금, 그리고 기타 소속팀 포상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달리스트에 대한 '연금'이다.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은 획득한 메달에 대한 평가점수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

통상 누적 평가점수가 110점이 되어 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림픽에 한해 금메달을 딸 경우 평가점수가 90점일지라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평창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남자 1500m 우승으로 우리나라에 첫 금메달을 안긴 임효준(한국체대)도 처음으로 연금 혜택을 받게 됐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의 매월 받는 월정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다. 금메달리스트의 월정금은 100만원이다. 일시금을 선택하면 6720만원을 받는다.

메달을 많이 따더라도 매월 받는 월정금의 최대 금액은 100만원으로 형평성을 위해 '일시장려금'이 마련됐다. 누적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하는 경

우 월정금 100만원 외에 대회 종료 후 일시장려금(올림픽 금메달 10점당 500만원, 은·동메달 10점당 1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금메달에 한해 가산 적용을 해 다른 올림픽을 포함해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할 시에는 50%, 같은 올림픽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 획득 시에는 20%를 더 지급한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2연패를 달성한 이상화는 현재 평가점수 346점으로 월 10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

쇼트트랙 금메달 등으로 이미 월정금 100만원씩을 받는 여자 쇼트트랙의 심석희와 김아랑도 평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일시장려금 6500만원을 거머쥘다. /연합뉴스



북측 응원단이 13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오죽헌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北 응원단 취주악단 오죽헌서 '깜짝 공연'

단원 80명 '반갑습니다' '아리랑' 등 30분간 노래·연주

13일 오후 조선시대 대학자 율곡 이이의 생가인 강원도 강릉 오죽헌. 오죽헌으로 들어가는 '지경문' 앞 광장에 민요 '아리랑'의 곡조가 울려 퍼졌다.

오죽헌에서 뜻밖의 광경을 접한 시민과 외국인들은 박수를 치며 힘차고 장중한 느낌의 색다른 아리랑을 감상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 중인 북한 응원단의 취주악 공연이었다.

북한 응원단 약 80명으로 구성된 취주악단은 이날 오죽헌에서 '깜짝 공연'을 했다. 빨간색 상의와 모자, 하얀색 하의의 의장대 복장을 한 취주악단이 대열을 지어섰고 빨간색 체육복 차림의 나머지 응원단은 취주악단을 빙 둘러서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띄웠다. 경찰은 이들의 돌래에

원형의 폴리스라인을 쳐 취주악단의 접근을 막았다. 취주악단은 트럼펫, 색소폰, 클라리넷, 플루트, 드럼 등의 악기를 들고 선 채 공연했다. 이들은 리더의 지휘에 맞춰 앞뒤로 스템을 밟거나 좌우로 몸을 흔들며 악기를 연주했다.

'반갑습니다'로 시작한 취주악단의 공연은 아리랑을 비롯해 '도장의 노래' '옹헤야' '폐지나침장나네' '달려가자 미래로' '정춘송가' '통일무지개' '다시 만나요' 등을 연주했다.

깜짝 공연인 탓인지 공연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관광객보다는 북한 응원단을 따라온 내외신 취재진이 폴리스라인 밖에 장사진을 이뤄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이로 인해 정작 관광객은 취재진 카메라에

가려 공연을 제대로 보기도 어려웠다.

북한 응원단은 이날 강릉의 명소 경포대 방문에 이어 오죽헌을 찾았다. 지난 7일 방남한 북한 응원단의 첫 나들이였다. 북한 응원단은 취주악단 공연에 앞서 오죽헌을 견학했다. 자경문으로 들어간 응원단은 오죽헌, 율곡기념관, 입지문, 향토민속관 등을 둘러봤다.

취재진이 응원단 주변에 몰려들어 응원단은 여유 있게 참관하지도 못했다.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빠른 걸음으로 여러 시설을 지나치듯 했다.

그러나 북한 응원단은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았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오죽헌 곳곳을 둘러봤다. 북한 응원단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오죽헌에 도착해 약 1시간 동안 머물렀고 취주악단 공연은 약 30분 동안 이어졌다. /연합뉴스

IOC "남북 단일팀 노벨평화상 논의한 적 없다"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미국 출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발언한 데 대해 IOC는 "관련해서 논의한 적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13일 강원도 평창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IOC는 남북 단일팀 노벨평화상과 관련해 고려한 바 없다"며 "멤버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1월 20일 IOC 주재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결정됐고, 그

런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처음 남북 단일팀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앤젤라 루제로(38) 위원은

지분물건/문종산 특별우대!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되풀이했다.

루제로 위원은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많은 분이 지지하고 있다"며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오천·경매

담당 최선규.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5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을 볼.

무료 공개 강의를 먼저 보시세요!
• 조 선 대 : 3월 8일(목) / 주간 10시, 야간 7시
• 광주여대 : 3월 6일(화) / 주간 10시, 야간 7시

2018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2월 1일(목) ~ 2018년 3월 8일(목)
- 교육기간 : 2018년 3월 8일(목) ~ 2018년 6월 14일(목)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20만원(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2018년도 1학기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2월 1일(목) ~ 2018년 3월 6일(화)
- 교육기간 : 2018년 3월 6일(화) ~ 2018년 6월 12일(화)
- 매주 화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20만원(예금주:광주여자대학교) 광주은행 148-107-307803
- 접수문의 : 062)950-3583~5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2018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6기)	광주교육대학교(17기)
개강일시	화요일 오전반 : 2018. 3. 6.(화) 09: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 2018. 3. 10.(토) 09:10 (특급반)	월요일 오전반 : 2018. 3. 5.(월) 09:10 (초급반) 금요일 오전반 : 2018. 3. 9.(금)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 2018. 3. 10.(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8. 2. 1(목)~3. 10.(토)	2018. 2. 1(목)~3. 10.(토)
수업기간	2018. 3. 6.(화)~2018.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8. 3. 5.(월)~2018.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 취득 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 의 :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병규) : 010-3614-4160 <p>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 의 : 062)520-4243 · 지도교수(선병규) : 010-3614-4160 <p>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p>